

# 음모론의 안과 밖, 장기 미제 사건을 이야기하다\*

## -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중심으로

김수안\*\*

1. 시작하는 말
2. 음모론에 맞서는 레거시 미디어의 자세
3. 과학적 검증의 과잉, 음모론으로의 회귀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범죄 인포테인먼트의 스토리텔링 전략에 주목하여, 레거시 미디어가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예능 프로그램을 교접해 시도하는 범죄 사건 스토리텔링의 저널리즘적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고자 했다.

주된 분석 대상은 이야기의 주제를 ‘음모론’으로 집약해 전면에 내세운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중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루었던 두 편의 에피소드다. 장기 미제 사건과 음모론을 관계 짓는 방식에 있어 두 에피소드가 드러내는 차이는, 레거시 미디어가 ‘음모론’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과 의도의 변화와도 결부되어 있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을 처음 다루었던 에피소드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발생하게 된 경로를

---

\* 이 논문은 대중서사학회 2022년 가을 학술대회 <대중 미디어 속 추리, 범죄 서사>(2022.11.19.)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원광대학교 이주라 선생님과 귀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FOUR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추적하고, 음모론 형성 및 유포와 관련된 정치적, 법적, 금전적 이해 관계를 파헤쳤다. 반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사건의 범인과 범행 도구를 추론하는 여러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가장 유력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또 하나의 가설을 제출하는 데 집중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기존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어진 과학적 검증 방법의 정밀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전시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결론은 검증하고자 했던 음모론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음모론을 프로그램의 주제로 삼아 문제시하려 했던 기존의 기획의도와 달리, 음모론을 괴담이나 미스터리처럼 추리의 소재로 조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음모론 자체를 문제적인 것으로 적시한다는 <당신이 혹하는 사이>의 첫 기획의도는 음모론에 대립하는 공론적인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정치적 행위로 읽을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공론의 재현은 레거시 미디어의 권위를 지탱하는 상징자본이라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권위는 팬텀 위기 상황이 한창 고조되었던 시기, 레거시 미디어가 각종 음모론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기도 했다. 개편을 전후하여 확인되는 프로그램 기획의도 간의 낙차와 음모론을 활용하는 양상의 변화는 레거시 미디어의 권위를 지키려는 자성적 시도와 손쉬운 표변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 음모론, 범죄, 스토리텔링, 인포테인먼트,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신이 혹하는 사이)**

## 1. 시작하는 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TV 프로그램 편성에서 눈에 띄게 관찰되는 변화는 시사 교양과 예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전달과 오락성을 양측으로 하는 이른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프로그램의 혼종적 성격은 2020년에 들어, 형식을 정비하고 소재를 확장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우선 형식의 면에서는, 정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의사소통 체계의 재현 양상이 단선적·수직적 설계에서 혼성적·다중심적으로 바뀌었다. 이를테면 기존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강연의 형태를 차용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틀 아래, 말하고 듣는 역할을 분담했던 방식은 대화적 관계로 재편되었다. 다수의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만으로 패널이 구성되는가 하면, 전문가가 비전문가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특수성이 대화적 관계를 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고안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투어 가이드와 여행객(〈세계 다크투어〉), 실습 교관과 훈련생(〈풀어파일러〉)처럼 가공의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프로그램 내의 허구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경우, 또는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발표자 역할이 비전문가 패널들에게 주어지면서 발표 내용을 부연하거나 해설하는 주변적 역할로 전문가의 위치가 조정되는 경우(〈장미의 전쟁〉, 〈당신이 흑하는 사이〉)를 예로 들 수 있다.<sup>1)</sup> 이때 관심사를 같이하는 패널들 사이

---

1) 언급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 다크투어〉, 오재승 연출, JTBC, 2022.6.9.-2023.2.8.; 〈풀어파일러〉, 서현석 외 연출,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2022.6.30.-2022.9.15.(시즌1); 2022.12.29.-현재(시즌2); 〈장미의 전쟁〉, 장보걸 외 연출, MBC every1, 2022.3.7.-현재; 〈당신이 흑하는 사이〉, 장경주 외 연출, SBS, 2021.4.28.-2021.5.26.(시즌1); 2021.8.12.-2021.10.14.(시즌2); 2022.1.5.-2022.4.27.(시즌3); 2022.8.27.-2022.11.5.(시즌4).

에 조성된(표방되는) 친밀감은, 특정 패널의 전문성과 정보량적 우위를 대화 참여자의 다성성으로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형식적 변화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소재가 인문학적 교양 영역을 넘어 시사 영역, 특히 범죄 사건으로 확장되어간 흐름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2020년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을 막론하고 각 방송사는 하나 이상의 범죄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이 프로그램들의 기획 의도는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의 삶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선별된 개별 사례에 집중하여 범죄의 유형, 발생 원인, 범죄자의 심리, 수사 및 검거 과정, 법적 처분과 결과, 피해자 회복 방안 등을 분석하고, 그 특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나의 주변에 상존하는 위협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경험적 맥락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특히 일상에 대한 위협과 그 불안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유한다는 감각은 범죄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대화적 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동일시의 바탕으로 작용한다.

범죄를 대화의 소재로 다루는 최근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범죄사건 혹은 범죄 현상을 이해하는 합의된 인식틀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표층적으로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객관적 사실의 틀이, 취재에 기반한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된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부분은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과 처리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구조적 맥락을 짚으며 이를 반성적으로 회고할 수 있는 (정치) 도덕적 소실점을 대화라는 장치로 합의해 낸다는 점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환경 감시 효과를 거두고 현안에 대한 인식적 합의점을 찾아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범죄 보도의 저널리즘적 당위성과도 결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범죄 사건이 인포테인먼트라는 혼종적 장르를

통해 문화 콘텐츠로 가공되어 빠르게 소비되어가는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전략에 내재하는 저널리즘적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sup>3)</sup>와 <당신이 혹하는 사이>(이하 <당혹사>)에서 전면화되는(행위로서의) ‘이야기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적 시선에서 배제되었던 타자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공감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역량을 읽어낸 최근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sup>4)</sup> 특히 ‘음모론’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당혹사>에 대해, 체제 바깥(“탈합치”)을 들추어 성찰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분석은, 음모론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레저시 미디어의 결정과 그 스토리텔링의 태도 및 방식을 공생의 방안으로 재고하는 하나의 맥락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 2) 안광식, 「TV 범죄보도와 언론윤리」, 『신문연구』 69, 관훈클럽, 225-226쪽.
-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최삼호·안윤태·유혜승 연출, 2020.9.17.-2020.11.26.(시즌1); 2021.3.11.-2021.7.29.(시즌2); 2021.10.21.-현재(정규 편성).
- 4) 권유리야, 「이야기하기의 철학: 진정성, 반기억, 탈합치-〈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4), 2022. 4, 1251-1269쪽. 이 연구에서는 <꼬꼬무>는 예능 프로그램, <당혹사>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면서, 이처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야기하기의 행위가 가진 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위의 글, 1252쪽). 하지만 두 프로그램을 각각 예능과 시사 교양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두 프로그램은 SBS 홈페이지 상에서 모두 ‘교양’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물론 프로그램 편제나 조직 구성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진, 상황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이 주도하거나 합류해 만든다는 공통점을 지니므로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프로그램을 포괄해 지칭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TV 프로그램의 전통적 장르들 간 이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당혹사>의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짚어낸 대안적 긍정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당혹사>의 시도가 갖는 의미는 프로그램이 론칭된 구체적 맥락과 에피소드 구성의 실례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sup>5)</sup> <당혹사>에서 음모론이라는 틀로 다루고 있는 주요 소재가 범죄 사건이라는 점,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범죄 사건 목록과 더불어 제작 인원의 면에서 <당혹사>가 기존 탐사보도 프로그램(<그것이 알고 싶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은 인포테인먼트라는 혼종적 장르의 출현과 성격을 레거시 미디어의 범죄 보도 전통과 연속선상에서 조망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sup>6)</sup>

무엇보다 <당혹사>의 경우, 2022년 8월 4시즈에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기획의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전반이 변화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불과 1년 남짓한 사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개편 양상에는 동류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과의 경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이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암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집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인 ‘개구리 소년 사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당혹사>에서 개편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다루었던 (유일한) 소재다. 특히 4시즈 첫회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시 다루는 방식은 <당혹사>의 기획의도가 차별화 지점으로 내세웠던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이 범죄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변모하면서 불거지는 문제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음모론을 논제화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태도 전환으로부터 범죄 사건을

5) 위의 선행 연구에서, <당혹사>에 대한 논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에피소드들에 집중해 이루어졌다.

6) <당혹사> 및 <꼬꼬무>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수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범죄 사건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TV와 유튜브 플랫폼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리터러시연구』 13(5), 448쪽 참고.

다루어온 관습적인 보도 문법에 내재된 위계적 재현의 양상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음모론에 맞서는 레거시 미디어의 자세

〈당혹사〉는 ‘합리적 교양을 가진 대다수 사람이 믿지 않는 인터넷상의 이야기’를 지상파 TV에서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난여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음모론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기피되어오던 끝에 기획되었다.<sup>7)</sup> 바꿔 말하면 〈당혹사〉의 제작은 ‘음모론’에 대한 기대 수요가 증가했으며, 예견된 지탄에 응수할 만한 저널리즘적 당위성의 기반 또한 마련되었다는 레거시 미디어의 판단을 확인케 한다. 여기에는 팬더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혹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던 2021년 2월은 COVID-19의 변종 유행이 수차례 거듭됨과 동시에 예방 접종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면서, 공중의 불안과 정치적 이해가 교합된 각종 음모론이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2월 17일 방영된 파일럿 〈당혹사〉 첫회의 주제가 ‘빌 게이츠의 코로나19 배후 음모론’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시세가 프로그램의 기획에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오래된 정통 음모론보다 현재의 살아 있는 음모론들을 수집”한다는 〈당혹사〉의 방향성은, “허무맹랑”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논박”될 수도 없는 ‘음모론’이 지상파 TV에서 다룰 만한 사안으로 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혹사〉가 제작진과 취재 자료 등의 면에서 탐사보도 프

---

7)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제작팀, 『당신이 혹하는 사이』. 책정원, 2021, 4-5쪽.

로그래밍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장선상에 놓인다는 점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인 〈당혹사〉에서 ‘음모론’의 진위 여부 판단에 중점을 두는 저널리즘의 ‘재판관적 태도’가 견지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sup>8)</sup>

물론 〈당혹사〉의 주제로 내세운 ‘음모론’이 분명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이는 음모론이 전문적 공론장 내에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음모론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전상진의 논의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는 음모론이 사회현실에 미치는 영향력과 대중의 관심에 비해 전문가의 학술적 접근이 기피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음모론자와 음모론 연구자를 구분해야 함을 상기시킨 바 있다. 전상진은 음모론이 현실과 기대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설명하는 (책임 전가와 회피의) 문화적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음모론 자체가 아니라 음모론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9)</sup> 음모론으로의 낙인과 같은 그 활용의 측면에 비추었을 때, 핵심은 권력 유지 혹은 권력 획득에 있다. 따라서 그는 음모론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을 ‘권력 유지나 획득을 목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집합행동’인 음모에서 ‘찾고 탐구하고 설명하는 이론’”<sup>10)</sup>으로 정리한다. 전상진의 논의는 (〈당혹사〉에서 정의하는 ‘음모론’을 설명해주어서가 아니라) 음모론의 본질에 비춰, TV 프로그램에서 음모론을 주제화하는 문제(결정)에 내포된 정치성을

8)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 지성사, 2014, 36-38쪽; 전상진은 음모론 연구자의 태도에 따라 ‘재판관’과 ‘관찰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재판관’은 음모론의 진위를 밝힐 수 있다고 믿으며 진위 판단에 중점을 두는 반면, ‘관찰자’는 진위를 밝힐 만한 수단이 없음을 ‘알고’ 그렇기에 음모론의 여러 ‘쓸모’에 집중한다. ‘관찰자’로서 음모론을 연구한다는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음모론과 실제 음모의 판정은 “오로지 강제적 수단, 가령 수사권, 강제력, 행정 명령, 군사력, 취재, 여론 등등을 동원할 수 있는 법원, 검찰, 정부, 국회, 언론, 공론장에서 내려진다”(위의 책, 38쪽).

9)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 지성사, 2014, 40-41쪽.

10)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 지성사, 2014, 44쪽.

재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

코로나 시대! 5G 광속의 유튜브를 타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맹렬하게 퍼지고 있다.

5G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유럽 곳곳에서 지지국이 불태워지는가 하면/ 맘카페와 단톡방을 중심으로 ‘빌게이츠가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이 확산되는 요즘 지구가 평평한 원반 형태라고 주장하는 소위 ‘플랫어서’들은/ 몇 년 사이 거대한 국제 커뮤니티를 이루어 CNN 뉴스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하고 있다.

21세기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중략…)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연한 기회에 음모론을 접하고 알고리즘의 굴레에 빨려들어가면/ 어느 순간 ‘묘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기 십상.

오늘 밤 이 이야기 만찬이 끝날 즈음 당신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sup>11)</sup>

〈당혹사〉는 음모론의 진위에 초점을 두고 거짓 음모론의 “박멸(!)”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sup>12)</sup> 기획의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소재로 삼는 ‘음모론’에 대한 진위 판단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오래된 ‘정통 음모론’의 예시는, “21세기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의아해하는 ‘정상인’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비시킨다. 무엇보다 음모론은 가짜뉴스와 동류로 묶여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음모론을 식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사〉의 기획 취지는 음모론을 활용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정치성

11) 〈당신이 혹하는 사이〉 파일럿부터 시즌3까지의 기획의도. 〈당신이 혹하는 사이〉 홈페이지(<https://programs.sbs.co.kr/culture/table3/about/70852>).

12)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제작팀, 『당신이 혹하는 사이』. 책정원, 2021, 6쪽.

은, 음모론이 권력 유지 또는 권력 획득에서 쓸모를 갖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즉 ‘음모론’의 주제화가 정치적 이해 관계와 맞물려 산출할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레거시 미디어가 음모론과 경합하기를 유보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음모론의 생산·유통 경로를 여러 차례 한정짓고, 그러면서도 뉴미디어의 속도와 파급력 그리고 “알고리즘의 굴레”로 인해 소수의 ‘비정상’적 의견이 ‘다중’의 상식을 위협하는 구도를 문제적 상황으로 적시하는 수사 전략은, 새로운 미디어의 비승인성을 대비해보이려는 레거시 미디어의 권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음모론에 대한 레거시 미디어의 발화 지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권위(의식)는 곧 정보의 진위 판단(정확히는 상식/비상식의 결정)을 가능케 하는 상징자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혹사>의 기획은 레거시 미디어의 존재이유가 위태로워진 현재의 미디어 시장 환경에 대처하는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권위가 미디어 소비 대중의 정치(정파)적 분열에 메타적으로 개입한다는 부담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저널리즘적 책임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도 하겠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혹사>는 ‘진지함’이라는 무드에서 비껴나는 요소들을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 “딱딱한 토크 쇼보다 한 편의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느낌”의 세트는,<sup>13)</sup> ‘영화 제작 아이디어 모임’이라는 가상의 상황에 현장감을 불어넣는다. 이와 같은 콘셉트는 패널 구성에서도 두드러진다. 기획사 대표를 겸하는 연예인과 영화 감독, 배우를 고정 인원으로 하고, 주제에 따라서 1명의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섭외한다. 모임의 성격은 “이야기 만찬”이라는 이미지로 더욱 구

13)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제작팀, 『당신이 혹하는 사이』. 책정원, 2021, 5쪽.

체화된다. 패널들은 기획사 대표인 진행자의 ‘집’으로 ‘초대’받는다. 먼저 모인 패널들이 사담을 주고받는 사이(오프닝) 초인종이 울리면 주인(진행자)이 직접 문을 열어 손님(다른 패널)을 맞이하고, 그 뒤 에피소드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만찬’이라는 설정을 상기시킨다. 패널들은 또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내 준비된 다과를 함께 즐긴다. 이들의 관계가 이완된 환경 속에서 친밀하게 재현됨에 따라, 음모론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봤니?”라는 일상적이고 사사로운 대화 소재로 재맥락화된다. 요컨대 <당혹사>는 음모론에 대해 진위 판단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문법을 계승하면서도, 공론을 형성하는 기존 장르의 진지함과 거리를 벌림으로써 레거시 미디어에서 음모론을 주제화하기에 적절한 무드를 조성해 보인다. 예능과의 접목은 음모론과 공론의 위상을 수행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당혹사>라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기획이 갖는 의미는 같은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두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특히 소재의 측면에서 확인된다. 범위를 국내로 한정했을 때, <당혹사>의 소재는 크게 역사적 사건과 범죄 사건으로 나뉜다. 그 중 범죄 사건은 (범죄성이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수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었던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경우에 속한다. <당혹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참조하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 영상 중 일부를 자료 화면으로 대체 사용하는 예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을 문제의 발단 즉 논의가 시작되는 배경 맥락을 제시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혹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참조관계를 드러내며 (같은) 미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후속 보도의 일환으로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혹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지점들, 범죄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서 축적되어간 풍문들과 의혹들, 이를 넘어 논리적이고 완결적인 사고 체계를 갖추게 된 음모론을 조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룬 에피소드다. <당혹사>에서는 시즌2 5회와 시즌4 1회,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두 에피소드 모두 ‘개구리 소년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에 주목하면서, 음모론의 생산과 확산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상당한 계기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두 에피소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을 주제화하는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음모론의 위상 변화는 장기 미제 사건이 TV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가운데 소비의 대상으로 정향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미디어 환경에 비춰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논의에 앞서,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성서 지역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이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동반 실종되었다. 연인원 30만 명이라는 단일 사건 대비 최대 수색 인원이 동원되었으나 11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고, 실종 아동들은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새방골 증턱에서 백골로 발견되었다. 유골 발견으로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고 ‘대구 성서 국교생 실종 사건’이라는 사건명 또한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으로 바뀌었다. 실종(으로 알려졌던) 당시, 피해 아동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채집하러 갔다는 사실이 개구리 알을 구하러 간 것으로 와전되었고, 이로 인해 ‘개구리 소년’이라는 표현이 굳어져 통용되게 되었다.<sup>14)</sup> 공소시효는 2006년 3

14) 이 글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지칭해야 하는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는 명명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지시하는 명칭이라는 점,

월 26일 만료되었고, 2019년 4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2019년 검거), 이형호(피해자) 유괴 살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회자될 만큼 장기간 언론이 주목했고, 세간에도 잘 알려진 사건이다. 세 사건 모두 영화화되었다는 점은 사건의 높은 인지도가 대중에게 호소력을 발휘한다고 간주되었으며, 미제로 남은 30여 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의혹과 추측들이 일정 수준의 완결성을 갖춘 이야기로 벌어나갔음을 알려준다.<sup>15)</sup>

3대 미제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부착되고, 이러한 인상이 대중에게 각인된 데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또한 영향을 미쳤다. 2011년 5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800회 특집으로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아직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3부작으로 기획해 방영했다. 3부작 중 2부로 방영된 에피소드가 <살인 무기를 찾아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2011년 5월 14일 방영)이었다. ‘21세기의 과학 수사 기법으로 20세기의 미제 사건을 파헤친다’라는 취지 아래 기획된 해당 에피소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2002년 발견된 유해에 남은 상흔과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을 처음 다루었던 <당혹사> 에피소드 1에서는 해당

---

더구나 실종 내지 살인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명명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이 명칭이 30여년 간 통용(따라서 인용될 여러 자료에서도 이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되어온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를 구체적인 지명이 선정적 단어와 함께 명시된 정식 사건명으로 대체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아, 우선 이 글의 단계에서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지칭해 혼란을 줄이는 편의에 기대기로 했다. 차후 조언을 얻고 숙고한 후에 해당 명칭을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15) 개구리 소년 사건은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조금환, 1992), <아이들...>(이규만, 2011)로 영화화되었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살인의 추억>(봉준호, 2003),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은 <그놈 목소리>(박진표, 2007)의 모티브가 되었다.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발생한 주요 경로로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정확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의 <그알 캐비닛> 코너에, 앞서 언급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편의 편집본이 업로드되고, 이 클립에 대한 댓글이 확산되는 일련의 사태가 지목된 것이다. <그알 캐비닛>은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는 등) 오래된 방영분을 다시 편집하여 20분 내외의 클립으로 제공하는 코너다. 거론된 클립의 제목은 “유골에 남은 범인의 흔적은? 개구리소년 사건”으로,<sup>16)</sup> 2019년 7월 19일 게시되어 (2022년 11월 7일 17시 53분 기준) 조회수 159만 회를 상회하며, 댓글의 수만 2,678개(위와 같은 시각 기준)에 달한다.<sup>17)</sup> 2021년 9월 9일 방영된 <당혹사> 에피소드1에서 이 클립의 조회수가 140만 이상, 댓글 수만 2,883개(2021년 8월 31일 기준)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봤을 때,<sup>18)</sup> 꾸준한 관심 속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임을 알 수 있다.

<당혹사> 에피소드1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음모론이 형성, 유포되는 데 해당 클립이 미친 영향을 짚어내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클립에서 사건의 범인을 추론하며 제시했던 가설들이 음모론 일부의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제공된 정보 역시 음모론의 근거로 활용되

16) “한국 3대 미제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범인은 누구일까?// 아이들의 유골에 남은 흔적과/ 시신의 매장 상태를 확인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범인은 싸이코패스가 틀림없습니다.”// 90년대에 나타난 21세기형 범죄,/ 21세기 과학수사기법으로 범인의 얼굴을 다시 그려본다!// 그것이 알고 싶다 801회(2011.5.14. 방송) 살인 무기를 찾아라,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GtyiUsoX3Kw&list=PLRqKOV7vKRS-DUaEJLxV4iPeUVPMY59GX&index=82>(<유골에 남은 범인의 흔적은? 개구리 소년 사건 그알 캐비닛>))

17) 댓글에 대한 답글 수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답글 수 920개를 합하면 총 3,598개.

18) 댓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존 댓글이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는 점이다. TV 방영분과 유튜브 클립의 제목이 모두 유해에 남은 상흔으로부터 범행 도구를 추정하고, 이를 범인 추론의 단서로 삼는다는 에피소드의 경계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두 영상은 관점과 내용상에서 그리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피소드1에서 음모론의 출처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에피소드1은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음모론을 추단된 범인상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논파한다. 이러한 음모론의 유형을 소개하기에 앞서 참조할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2011년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분이다. 여기서는 당시 프로그램 상에서 범인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했음을 상기시킨다. 그 내용은 ① 오랫동안 와룡산 주변에서 생활한 인물, ② 일반인은 잘 모르는 공구를 다루는 데 익숙한 인물, ③ 1991년 사건 이후 수개월 내 현장 일대를 떠난 인물로 요약된다.<sup>19)</sup> 에피소드1에서는 이 분석 내용을 근거로 가설을 세우고 있는 하나의 댓글에 주목한다. ‘범인은 선생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댓글은 가장 많은 342개의 답글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의 게시판으로도 확산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당혹사> 에피소드1은 “‘선생님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댓글”을 직접 인용하며 방영분에서 제시한 프로파일링 결과와 하나씩 짝지어 참조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다.

---

19)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오랫동안 와룡산 주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이나 지리를 잘 아는. 둘째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공구를 다루는 데 좀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91년 사건 이후 수개월 이내에 이곳을 떠났을 사람이다.”(09:25-09:54)

20) 이 댓글은 삭제되어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당혹사> 방영분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프로파일링 #1 [오랫동안 와룡산 주변에서 생활]

용의자특성에서 1번과 3번에는 부합하네.

1번은 저 학교에 근무하려면 당연히 학교근방에 오래있었어야 할거니까 잘 알거고,

프로파일링 #3 [사건 이후 수개월 내 현장 일대를 떠남]

특히 3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 왜? 교사들이 한곳에서 교사생활

못하는걸로 알거든. 자연스레 타 지역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옮겨갈 수 있다. (09:55-10:16)<sup>21)</sup>

해당 자막은 글자체와 띄어쓰기, 줄 바꿈, 비문 등 인터넷 댓글의 특성을 상기시키는 요소를 그대로 가시화한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발신한 분석적 정보가 수용자에게 도달하고 재생산되는 과정 내에 예기된 오해와 왜곡의 가능성은 댓글이라는 글쓰기에서 보이는 규범적 낙차와 그러한 비규범성이 문제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이 환기되는 가운데 암시된다. 또한 이를 통해 범인 추론의 목적 아래 가설들을 제기하고 과학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며 검증해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러티브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특히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자발적 전파와 순환(viral loop)을 프로그램의 주효 동력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sup>22)</sup> 수용과 재생산의 층위에서 (경험적으로) 예견 가능한 왜곡과 왜전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21) 방영분 전사에는 Wavve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방영분 내용을 인용할 때는 참고를 위해 (분:초)를 표시한다.

22) 이와 관련해서는 김수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범죄 사건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TV와 유튜브 플랫폼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리터러시연구』 13(5), 452-453쪽; 465-475쪽 참조.

〈당혹사〉 에피소드1에서 음모론이 형성, 유포되는 초입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위치시키는 두 번째 맥락은 이러한 의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에피소드1은 해당 유튜브 클립 화면과 그 하단의 댓글들을 자료 화면으로 삽입하고, 음모론의 발원처임을 명시한다. 나아가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을 수단 삼아 개인이 품은 의혹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음모론으로 규모를 갖추 유포되는 양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재현해낸다. 먼저 TV 방영분을 원본으로 하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달리고, 여기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답글이 덧붙으며 때로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일종의 근거처럼 링크되는 유튜브 채널 내의 가지치기를 조명한 다. 그중 앞서 언급했던 댓글(“범인은 선생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형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패널들은 해당 댓글을 “단톡방”(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며 한 명씩 답글을 골라 읽고, 동의 혹은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을 짚어 따로 언급한다. 교사들을 조사한 적 있다는 사건 담당 형사의 인터뷰 화면을 보여주자, 패널들은 이 자료를 곧바로 댓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맥락화하고 범인은 교사라는 주장에 빠르게 동조해간다. 패널들의 판단은 사건 당시 제보만 1,500건이었고 혐의점이 있는 교사는 없었다는 또 다른 인터뷰가 공개됨에 따라 이내 철회된다. 이들의 정보 수용 및 해석 방식은 〈당혹사〉에서 ‘음모론’적 사고의 특징으로 거듭 언급한 바 있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의 실례에 해당한다.<sup>23)</sup> 이처럼 에피소드1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제기된 의혹이 나름의 논리 체계를 갖추고 설득력을 얻어 마치 이론처럼 퍼져나가는 메커니즘을 패널들의 연기를 통해 반성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당혹사〉 에피소드1에서는 범인에 대한 여러 가설을 ‘음모론’으로 지목

23) ‘확증 편향’의 문제는 ‘남해고속도로 실종 사건과 확증 편향’을 주제로 한 〈당혹사〉 시즌1 5회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바 있다.

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준 아래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음모론은 교사(教師) 설, 도사건 설, 유가족 설, 사고(범인 없음) 설의 네 갈래로 나뉘어 차례대로 소개·논파된다. 논박은 우선, 각 음모론에서 활용하는 논거가 주장에 부합하도록 선별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제되었던 자료들을 추가 제시하고 자료 해석의 관점을 전문가의 분석(인터뷰)으로 뒷받침하면서 사고의 폐쇄성을 들춰낸다. 보다 심부에서 해당 음모론들에 대한 공격은, 각 음모론의 (최초) 유포자와 확산 방식을 추적하고 음모론 유포의 목적, 즉 이해관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사 설에서 사고 설까지, 네 종류의 음모론이 나열되어가면서 음모론 유포자의 정체는 점점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로 밝혀지고, 이에 따라 음모론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가치판단하는 윤리적 시선 또한 날카로워진다. 도사건이 물어 죽였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고스트 박스’를 동원하는 인터넷 방송 BJ, 피해자의 부친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심리학자와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 집 마당에서 발굴 작업을 벌인 경찰, 사진성을 부정하며 저체온사를 강변하는 당시 대구 경찰청 수사 지휘자의 얼굴이 하나하나 폭로됨에 따라, 그들의 음모론은 더욱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음모론에 대응하는 이러한 태세(stance)가 패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잇따른 ‘음모론’에 누적된 피로감과 고양된 분노를 표출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진위 판단은, 그러한 가설을 제기하고 퍼뜨리는 의도—금전적 이익, 공명심, 책임 전가—에 대한 가치 판단(기억) 아래서 내려진다. 요컨대 이 에피소드에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가설들을 지칭한 것은, 이러한 가설들이 해석되어야 할 인지들을 제안하는, 프레이밍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3. 과학적 검증의 과잉, 음모론으로의 회귀

그런데 <당혹사>에서 ‘음모론’을 주제화하는 양상은 시즌4로 접어들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5G 광속의 인터넷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괴담과도 같은 [미스터리와/ 가짜뉴스에 기반한 [음모론]은 맹렬하게 퍼지고 있다.

“마이클 잭슨과 장국영을 사망케 한 건 누구일까?”

“그 미제사건의 범인은 사실 XXX이야!”

온갖 [미스터리 유튜브]들과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전하며 여론의 선봉에 서 있다./ 21세기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많다! // [미스터리 & 도시괴담 & 각종 음모론]류의 이야기들은 처음엔 황당하지만.../ 하나하나 그 가설과 근거를 따라가다 보면 묘하게 빠져든다는 데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믿지 않던 이들도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면,/ 알고리즘의 굴레에 휘말려... 어느 순간 ‘묘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기’ 십상!// 오늘 밤, 이 이야기 만찬이 끝날 즈음 당신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sup>24)</sup>

시즌4의 기획의도에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는 맥락은, 각 에피소드의 소재를 ‘음모론’으로 통칭함으로써 반성의 대상이 되는 사고체계를 (언명적으로) 구획·지시하는 효과를 꾀했던 시즌3까지의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에 가짜뉴스와 동궐에 놓였던 음모론은 가짜뉴스와 인과적 관계에 놓이며 오히려 그 함의가 축소되고 도시괴담, 미스터리와 병렬된다. 유명 연예인의 사망을 둘러싼 루머처럼 옐로 저널리즘의 소재 정

24)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4 기획의도. <당신이 혹하는 사이> 홈페이지(<https://programs.sbs.co.kr/culture/table4/about/74847>).

도로 음모론의 외연을 조정하고, 미스터리 유튜버와 음모론자를 동류로 묶으며 음모론 생산의 동인을 금전적 이익 추구로 단순화함에 따라 ‘음모론’ 형성 및 유포를 정치적 행위로서 읽어낸다는 기존의 독법은 자취를 감춘다. 이와 더불어 희석되는 것은 다중의 상식(common sense)을 위협하는 음모론을 식별한다고 했을 때 감지되었던 <당혹사>라는 프로그램의 정치적 결정이기도 하다. 실제 시즌4에서는 종래 전체 에피소드의 절반에 달했던 정치적(정파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한국 근현대사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찾아볼 수 없다.<sup>25)</sup> 이는 종래의 시즌에서 해당 범주가 전체 에피소드의 절반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과 대비된다.<sup>26)</sup> 표면적으로는 시즌4에서 다루는 소재가 음모론과 ‘더불어’ 다양해지고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결부된 주제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개편된 <당혹사> 시즌4는 “사람이 만든 수수께끼를 사람이 풀지 못할 리가 있소?”(00:05)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첫 회에서 ‘개구

25) 해당 범주에 속하는 주제를 다룬 부(당혹사) 한 회는 주제에 따라 1 혹은 2부로 구성의 개수는 시즌1 총 5회 10부 중 4개, 시즌2 총 10회 18부 중 9개, 시즌3 총 12회 23부 중 12개다.

26) 시즌별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은 시즌1 4.2%, 시즌2 3.51%, 시즌3 2.51% 그리고 시즌4 2.92%로 시즌3에 접어들면서 시청률이 3%를 밑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부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시즌제로 방송된 만큼 각 시즌의 방영 요일 및 시간대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의 성격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에피소드의 소재가 시청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각 시즌의 시청률 상위 10%에 해당하는 에피소드 4편 중 3편이 국내의 의문사와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에피소드 6편(시즌2 2편, 시즌4 2편 동물)은 근현대사 사건과 국외 이슈, 초자연적 현상(시간여행자, 미확인 구름, UFO 청문회)을 다루고 있었다. 참고로 ‘개구리 소년 사건’과 ‘UFO’를 다룬 시즌4 첫회는 시청률 하위 10% 에피소드에 속한다. 제작진 또한 매 시즌 조금씩 달라졌지만 CP가 동일하고 (시즌1에서 시즌2로 넘어가면서 1명의 메인 PD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메인 PD와 메인 작가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리 소년 사건’은 다시 다루어진다. 이 에피소드(이후 에피소드2로 지칭)에서 역시 집중하고 있는 소재는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음모론’이다. 그러나 음모론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 우선, 에피소드2에서는 음모론의 출처 하나를 특정하여 그것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검증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2022년 6월 1일 오후 8시 23분 ‘네이트판’에 게시된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흥기를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살해 도구를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글이 주목받게 된 배경 맥락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레거시 미디어의 진지한 보도 대상으로 포착(승인)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흥기를 알고 있다”의 인용 및 보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5.14.	2021.9.9.	2022.3.26.	2022.6.1.	2022.6.7.	2022.6.8.	2022.7.19.	2022.8.27.
〈그말〉 801회	〈당혹사〉 2-5	김재산 『아이들은 왜 산에 갔을까?』 출간	네이트판 게시글	KBS 〈뉴스 D-LIVE〉	『동아일보』 『서울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KBS 뉴스 인용 기사	MBC 〈PD수첩〉	〈당혹사〉 4-1

〈표〉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흥기를 알고 있다” 인용 및 보도 추이

2021년은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된 해였다. 이 대목은 작년과 올해 해당 사건을 다시 조명한 많은 언론 보도에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가운데 언급되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주목된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당시 현장 취재기자의 단행본 출간 소식과 거기서 재차 주장된 저체온사 설이었다. 이후 두

달여 간 사고사와 타살 가능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유족의 반발을 전하는 신문 보도가 이어졌고 온라인상에서도 저마다 사건의 진상을 추정하는 각종 추측성 글이 또 한차례 떠돌았다. 그러던 중 살해 도구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특정하고, 범인을 인근 고교생으로 지목한 문제의 게시글이 온라인 한정으로 편성된 KBS <뉴스 D-LIVE>의 ‘크리스탈 마인드’에서 다루어졌다. 그러자 이튿날 십여 개의 주요 일간지에서 “KBS 뉴스”라는 타이틀과 전문가의 이름, 그리고 일부 발언(“상당히 설득력 있어”, “개구리소년 흥기 새 주장, 좀 감동” 등)을 제목으로 받아쓴 온라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sup>27)</sup> 한 달 뒤,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는 <와룡산에 묻힌 진실>(1339회)을 방영했다. 이 에피소드는 ‘최근 사고사 설이 제기된 개구리 소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 추측과 가설을 집중 취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02:50-03:05). 그리고 가장 먼저, 또 비중 있게 다룬 ‘가설’이 버니어 캘리퍼스 살해 도구 설이었다.

27) 김소정, <“개구리소년 흥기는…” 새 주장에, 이수정, “상당한 설득력” 말한 이유>, 『조선일보』, 2022.6.8.08:01; 황예림, <이수정 “개구리소년 사건 새 주장 설득력 있어”… 화제의 글 다시 보니>, 『머니투데이』, 2022.6.8.10:00; 이정수, <개구리소년, 버니어 캘리퍼스에 살해? 이수정 “설득력 있어… 재수사 필요”>, 『서울신문』, 2022.06.08.10:01; 소봄이, <이수정 “개구리소년 흥기 새 주장, 좀 감동”…이춘재까지 거론한 이유>, 『news1』, 2022.06.08.10:22; 두가온, <‘개구리소년 범인-흥기’ 새 주장에…이수정 “상당히 설득력 있다”>, 『동아일보』, 2022.6.8.11:08; 하수영, <“개구리소년 흥기 알고 있다” 주장에… 이수정 “설득력 있다”>, 『중앙일보』, 2022.06.08.11:48; 이미화, <이수정 “개구리소년 버니어캘리퍼스 살해 가설 설득력 있어”…재수사 필요성 언급>, 『여성조선』, 2022.06.08.11:49; 김현덕, <이수정 “개구리소년 흥기 새 주장, 합리적 추론…일리 있다”>, 『한경닷컴』, 2022.6.8.13:33; 임미소, <‘개구리소년 타살 흥기는 버니어 캘리퍼스’ 새 주장에 이수정 “설득력 있다. 감동 받았다”>, 『세계일보』, 2022.06.08.15:27; 윤주영, <‘개구리소년’ 범행 추측 글에…이수정 “상당히 설득력 있어”>, 『한국일보』, 2022.06.08.16:00; 김선형, <이수정 “개구리 소년 범행 도구 ‘버니어 캘리퍼스’ 설득력 있다”>, 『연합뉴스』, 2022.6.8.17:00. 온라인 기사의 경우 탑재 시간(순서)이 중요하므로, 입력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PD수첩〉 1339회는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 이후 곧바로 “나는 개구리소년 사건의 흥기를 알고 있다”라는 게시글을 보여준다(01:40). 이 게시글은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을 통해 방송사로 접수된 여러 제보 중 하나인 듯이 축소되지만,<sup>28)</sup> 해당 구간에 덧씌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가격하는 재연 장면(01:43-01:47)은 에피소드의 초점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살해 도구일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놓여 있음을 예고한다. 그뿐 아니라 기존 수사 결과상 살해 도구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타살은 ‘잠정 결론’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한 직후, 살해 도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게시글의 존재를 환기시킨다(05:10).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맥락에 해당 게시글을 위치시키고, 게시글을 직접 캡처한 화면을 공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첫째, 그것이 알고 싶다 801회가 방송된 날짜가 2011년 5월 14일. 내가 그럼 했수로 무려 11년동안 주장했다는 소리. 네이트 뉴스 댓글은 물론 유튜브 댓글로 수도 없이 떠들었지만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아. 아니 오히려 조롱해. 비아냥거리고.

[이후 여러 문단은 빠르게 훑어내림.]

〈두개골 상흔 사진〉

그 앞에서 내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어? 버니어캘리퍼스잖아.”라고 자동반사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왔어. 당연히 그앞에서 흥기도 찾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자꾸 용접 망치래.(05:10-05:15)

한 달 후 방영된 〈당혹사〉 에피소드2 역시 인용부 중 “그앞에서 내가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어? 버니어 캘리퍼스잖아”라고 자동반사적으로 입에서

---

28)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개구리 소년 사건. 그 후로 31년이 지난 지금, 개구리 소년들에 대한 제보들이 들려왔습니다”(01:33-01:43).

튀어나왔어”라는 문장에 주목했다(03:13). 게시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두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당혹사〉 시즌4 에피소드2는 소재 선정과 접근 방식에 있어 〈PD수첩〉 1339회 방영분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게시글의 주장을 검증이 가능한 정보 단위로 분절해 요약하고, 검증 방법을 설계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당시 와룡산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 학생들 중 누군가가 흡입 장면을 피해자들에게 목격당한 뒤 은폐를 위해 가지고 있던 공구인 버니어 캘리퍼스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게시글의 주장이다. 〈PD수첩〉에서는 이 글이 제기한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기 위해, ①실제 와룡산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학생들이 많았는지, ②인근 공업고등학교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했는지,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후,<sup>29)</sup> ③버니어 캘리퍼스가 살해 도구인지를 검증하는 실험에 돌입한다. 두 명의 법의학자는 두 차례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당일 실험한 도구 중에서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두 번째 실험에서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전지가위가 두개골의 상흔과 유사한 형태의 흔적을 보인다고 결론내린다.<sup>30)</sup>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PD수첩〉에서의 취재 내용과 전문

29) 이 부분의 취재 결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주장’되었다. ‘기체과가 없어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쓰지 않는다’라는 인근 공교 재직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입장”으로 전달한 뒤, “와룡산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많이 사용됐을 것입니다”(10:00-10:05)라는 추정으로 앞의 인터뷰 결과를 축소시킨다.

30) “[법의학자] 사진과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건 오늘 실험한 것에서 놀랍게도 버니어캘리퍼스. [진행자 내레이션] 버니어 캘리퍼스로 내리친 흔적이 두개골의 손상흔과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2:03-12:21) ‘버니어 캘리퍼스’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실험은 저체온사 설 직전에, 두개골에 상흔을 남긴 도구를 찾는 실험은 저체온사 설 직후에 시행한다.

가들의 실험이 살해 도구를 특정한 게시글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며, 이렇게 근거가 보강된 타살 설이 사고사 설과 맞서는 구도가 암시된다.

〈당혹사〉 에피소드2는 일주일 새 조회수가 200만 건에 달하는 화제의 게시글이 있다는 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자체, 그에 대한 대중의 높은 호응으로 소재 선정의 맥락을 한정해 밝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시글의 주장(①, ②, ③)을 인터뷰 등의 취재와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당혹사〉 에피소드2의 취재 대상과 내용, 실험 설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완의 양상이다. 피해자들의 동창생과 인근 공고 재직 교사를 인터뷰하여 ①, ②를 확인했던 방식은 인터뷰 대상을 달리하여 취재의 폭을 보다 넓게 제시한다. 주장 ①은 야산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학생들을 인터뷰한 뉴스 보도 화면, 90년대 형사기동대에서 근무한 패널의 경험담을 통해 설득력을 얻는다. 주장 ②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구상들을 대상으로 인근 공고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납품하는지를 취재해 확인한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은 게시글에서 또 하나 특정하고 있는 정보, 즉 인근 공업고등학교를 ‘S 공고’라고 지목한 부분을 공개하고, “90년대에 바로 그 학교를 다녔다는 졸업생들을”(17:55-17:58)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반박된다. 당시 와룡산이 우범지대로 인식되거나 불량학생 문제가 심각하게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 재학 당시인 90년대 초 ‘S 공고’에는 기계과를 비롯하여 공구를 다룰 만한 전공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터뷰이의 주장과 게시글의 두 주장은 배치된다. 나아가 에피소드2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장 ③에 대한 검증 “실험의 결론” 또한 “최소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니었을 것”(39:27-39:30)이라고 정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프로그램의 취재 및 실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 이 아니다. 핵심은 장기 미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TV 프로그램이 거듭해

서 혹은 경쟁하며 주된 소재로 다루는 가운데 과학적 검증이라는 주된 방법론이 흥밋거리로서의 민낯을 드러내고, 문제의식이나 결론에서 내비치는 당위성은 공소해지는 그 낙차에 있다. <당혹사> 에피소드2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음모론’이라고 지목한 글에서 ‘의심’한, 범인과 관련된 특이 사항을 노출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더 가능성 높은 추론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실험이 필요”(29:57)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에피소드2에서는 범행 도구 실험에 약 10분(30:09-39:30)을 할애한다. 이는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룬 1부 총 분량(40분 30초)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중 3분 동안(30:09-32:55)은 실험 설계와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정교한 실험’을 위해, 에피소드2에서는 먼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명한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검시 시스템”(30:20)을 구축한 빅토리아 법의학 연구소의 법의인류학자에게, 버니어 캘리퍼스가 흥기로 사용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10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한 “국내 최고의 실전형 전문가”(31:20-31:23)인 법의학자에게 실험용 두개골의 재질과 강도뿐만 아니라 ‘곡면’ 역시 고려할 것을, 또 다른 전문가에게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두피의 구조와 물성”(32:15)을 반영할 것을 제안받아 실험체를 준비한다. “현존하는 것 중 실제에 가장 가까운 독일제 교육용 모델 두 가지”로 두개골 모형을 마련하고, 교수진과 특수분장 팀을 동원해 “실리콘 복합물로 두피를 대체”한다(32:31-32:32). 이는 사람의 두개골과 비슷한 경도를 갖는 돼지 뼈나 나무 타격대를 활용했던 기존 실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다.<sup>31)</sup>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모형 제작 과정과 실

31) 기존 실험에는 “두개골 X자 손상흔”에 주목하여, 지점토를 올린 두개골 모형, 돼지 머리뼈, 직육면체의 생체역학 테스트 블록으로 실험한 <PD수첩>의 예도 포함된다

험 공간(무대) 설치 과정, 수십 개의 실험 도구를 공구판에 진열하는 모습을 빠르게 잡아 재생해 보여준다(32:40-32:54).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면, 설계 과정부터 참여한 두 법의학자는 우선 두개골의 상흔을 'X자'로 단정한 데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해의 두개골이 찍힌 사진은 점점 확대되고, 상흔은 CG로 강조되어 법의학자의 눈앞에, 또 화면 가득히, 그리고 패널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다. “실제로는 약 2mm의 작은 상처”이기에 “범행 도구의 매우 작은 특징이 왜곡되어 발견되었을 개연성”(32:55)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다. 공구판 가득히 걸린 수십 종의 도구 중 직관적으로 상흔의 크기보다 확연히 큰 것들을 제하고 남은 “살인 무기의 후보군”(34:30) 세 가지, 다목적 가위, 버니어 캘리퍼스, 용접 용 망치로 타격 실험은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가장 유력했던” 것은 다목적 가위로 지목되며, 함몰골절을 수반하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제외된다. 이러한 결론 역시 타격 실험을 했던 두개골 모형을 돌려보는 과정을 거쳐 패널들에 의해 재확인된다.

해당 실험은 ‘실험 도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이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 “실험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34:09)라는 전제 아래 진행된다. 그리고 이미 고백된 이 ‘한계’가 수 분간 타격 행위가 이어지며, 부서진 두개골 모형의 잔해가 포착되고, 확대된 유해 사진이 비교 목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된 뒤, “그렇다고 해서 다목적 가위가 범행 도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38:54-38:56)라고 돌아올 때, 이 실험의 목적은 더 큰 의문 속에 남는다. 피해자의 훼손된 두개골은 30년째 미제로 남아 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며, 살해 도구를 밝힐 중요한 단서라는 점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누누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이 대목

---

(22:20-26:30).

이, 용접 용 망치로 추정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801회부터 버니어 캘리퍼스의 가능성을 접쳐본 〈PD수첩〉 1339회, 다시 기각하는 〈당혹사〉 에피소드2까지 수차례에 걸쳐 재현된 타격 실험의 구실로 전유되는 듯한 의심이 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시인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진위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과 검증 과정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차용한 방법론의 지향이 본질에 있어서는 상충하기 때문이다.

〈당혹사〉 에피소드2의 경우,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와 전문적 기술을 동원한 실험의 결과를 또 하나의 ‘가설’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특정 도구를 살해 도구로 주장한 게시글 그리고 해당 가설을 검증하려 했던 다른 프로그램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 집중한 결과이자, ‘음모론’을 논박의 대상으로 축소해 접근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당혹사〉 시즌4의 기획의도 및 전반적인 개편 방향과 연관되어있는 것이다.

〈당혹사〉 시즌4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패널 구성 측면에서 발견된다. 기획사 대표를 겸했던 진행자와 패널 한 명이 교체되면서, 영화 제작 아이디어 모임이라는 가상의 설정 또한 사라진다. 주목할 부분은 그 대신 이들이 만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계기로 들어서는 ‘가상의 상황’이다. 〈당혹사〉 시즌4는 “가상의 BJ, 실제의 풍문”(02:48)이라는 맥락 속에 인터넷 방송을 재연한 영상을 함께 보고, 거기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을 취한다.

패널들이 에피소드의 주제를 처음 접하게 되는 통로인 재연된 인터넷 방송 화면은 세 인물(남성 2명, 여성 1명)이 각각 BJ를 맡아 연기하는 세 편의 방송이 교차 편집된 방식으로 구성된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BJ의 상은, ‘도시괴담, 미스터리, 음모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위치를 대표한다. 이들이 재연하는 몸짓과 발화는 지상파 TV 방송의 규율에서 이탈한 지점들을 내보인다. 예를 들어 BJ들은 “이 도구로 뭔가를 찍었을 때 생기는 흔

적이 소년들의 두개골에 난 이 작고 촌촌한 상흔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03:38-03:45), 손에 든 버니어 캘리퍼스로 내리찍어 보이거나 손가락질과 함께 “인근 공고에 다니던 불량 학생들”을 범인으로 지목한다(04:17-04:19). 이들은 “진짜 소름 돋는”, “자세해도 너무 자세하다”(04:49-05:00)라는 게시글의 내용을 ‘음성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바로 가방 속에 있던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미친 듯이 헤드록 건 상태에서 같은 곳만 막 때린 거야. 이미 머리를 여러 대 맞은 아이는 피를 미친 듯이 흘렸을 거고”(05:01-05:13)). 이처럼 재연된 BJ들은 과장된 몸짓과 (상대적으로) 비격식적(casual)인 언어를 사용해 불확실한 정보를 단정하거나 편견을 강화하는 언사를 보인다. 나아가 게시글의 폭력적인 묘사는 BJ(를 연기하는) 개개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발신인(‘나’)의 인칭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렇듯 정제되지 않은 낱것의 자극이 TV 프로그램 내에서 용인되는 것은, 그것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각종 의견과 주장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인터넷 방송’ 영상”(02:37)이기 때문이다. 자막으로 사전 고지한 이 ‘거리’는 지상파 TV와 인터넷 방송 사이에 전제된 명백한 위계를 드러낸다. 미스터리나 도시괴담을 향유하는 감각으로 음모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그 경로로 지정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레거시 미디어가 취하는 비승인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적인’ 인터넷 방송을 TV 프로그램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족적으로 주장되는 ‘권위’는 장기 미제 사건처럼 국가 차원의 실패와 해소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오락 상품으로 재현해 유통하는 책임을, 레거시 미디어의 규율을 이탈한 인터넷 미디어 장에 전가하는 데 소용된다.

실제 <당혹사> 에피소드2를 약 20분 분량으로 요약한 유튜브 클립에 대

한 댓글들은, 해당 콘텐츠를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음모론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2)</sup> (댓글에 대한 답글을 제외한) 총 699개(2023년 2월 3일 22시 기준) 중 237개(33.9%)의 댓글이 방영 내용을 토대로 하거나 항설을 인용하여 저마다 범인상을 추론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의 댓글이(142개, 59.9%) 우선 범행 도구를 지목하고 이를 근거 삼아 범인을 짐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범행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닐 것’이라는 에피소드2의 잠정적인 결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범행 도구에 미루어 범인상을 가정하는 논리 구조 자체는 높은 비율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전체 댓글 중 65개(9.2%)가 에피소드2의 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댓글들에서 비판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험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적인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가설을 공박한다는 전략이 재생산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요컨대 〈당혹사〉 시즌4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을 음모론의 소재로 가공한 방식은 오래된 미제 사건을 지속해서 추리의 대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했다.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보를 분절하며 논박을 되풀이하는 과정은, 〈당혹사〉에서 음모론의 온상이라고 지목한 디지털 환경에 조응하며, 음모론을 등록한다는 행위 자체를 유의미한 의제 공유 방법으로 굴절 및 유도하는 음영을 드리웠다.

32) 〈당혹사4 요약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흥기를 알고 있다” 끔찍한 미제 사건, 살인 무기의 진실은?〉, 달리(SBS 교양 공식채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nRE-Jn7yikg&list=PLVbV9mqtfzKfdCn099xK6dl292PHR-VcZ&index=51>

#### 4. 맺음말

‘음모론은 본디 완벽하게 논박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sup>33)</sup> 지상파 방송사에서 음모론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을 주저하게 만든 주된 이유로 언급된 바 있다. 음모론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다중의 의견으로서의 공론을 재현할 수 있는 레저시 미디어의 역량, 즉 권위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위는 팬더믹 위기 상황이 한창 고조되었던 시기, 레저시 미디어가 각종 음모론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기도 했다. <당혹사>는 여기서 출발했다.<sup>34)</sup> 음모론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사회 정치적 메커니즘, 그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이 겪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명하며, 음모론을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팬더믹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라앉고, 음모론을 식별하는 행위의 정치성이 정파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시세로 돌아서면서,<sup>35)</sup> <당혹사>가 음모론을 주제화하는 방식은 변하게 된다. “탐정 느낌”(01:12)으로 꾸며진 세트에서 새롭게 시작한 <당혹사> 시즌4에서, 음모론은 도시괴담과 미스터리와

33)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제작팀, 『당신이 혹하는 사이』. 책정원, 2021, 5쪽.

34) “올바른 정보전달이라는 교양 본연의 정체성을 예능적인 코드에 버무린 프로그램으로, 음모론의 실체와 배후, 확산 메커니즘을 추적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경계했다”라는 것이 <당혹사> 파일럿 에피소드의 이달의 PD상 수상 이유였다. 박수선, <당신이 혹하는 사이>·‘모여라 덩동댕’ 등 6편 이달의 PD상 수상, 『PD저널』, 2021.03.1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72>.

35) 이러한 판단을 추정할 수 있는 예로 동사(同社)의 <꼬리의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5회(2022.7.7. 방영) <7,000억 스캔들: 큰손 장 회장의 비밀>을 둘러싼 논란과 제작진의 사과, VOD 서비스 중단(2022.7.8.)을 들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범죄자(장영자)를 미화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당혹사>는 시즌3를 마치고(2022.4.27.) 시즌4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동일선상에 놓이며 ‘추리’의 소재로 범주가 조정된다.<sup>36)</sup> 즉 음모론은, 보다 정밀한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하는 보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논박되어야 할 ‘익숙한’ 대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당혹사> 시즌4에서 음모론에 대한 논박은 과학적 검증 절차를 비대화하고 과시하는 동시에, ‘음모론자’와 그들이 점유한 미디어를 경계 짓고 속물성과 선정성을 각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처럼 ‘권위’를 비판성적으로 활용해 제출할 수 있는 결론이란, 음모론과 변별되지 않는 또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았다.

---

36) 이와 함께 SBS에서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범죄를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의 블록화가 이루어진다. 목요일 10시 30분 <꼬꼬무>, 금요일 11시 20분 <지선 씨네마인드>(〈그알〉 유튜브 코너가 TV 프로그램으로 론칭된 사례), 토요일 8시 35분 <당혹사> 시즌4, 토요일 11시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민수 외 연출, <PD수첩> 1339회, MBC, 2022.7.19.  
이경홍 연출, <그것이 알고 싶다> 801회, SBS, 2011.5.14.  
장경주 외 연출,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2 5회, SBS, 2021.9.9.  
\_\_\_\_\_,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4 1회, SBS, 2022.8.27.

### 2. 논문과 단행본

- 권유리아, 「이야기하기의 철학: 진정성, 반기억, 탈합치-〈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당신이 혹하는 사이〉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4), 2022. 4, 1251-1267쪽.  
김수안,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범죄 사건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TV와 유튜브 플랫폼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리터러시연구』 13(5), 2022. 10, 445-480쪽.  
안광식, 「TV 범죄보도와 언론윤리」, 『신문연구』 69, 관훈클럽, 224-237쪽.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제작팀, 『당신이 혹하는 사이』, 책정원, 2021.  
안 빌헬름 반 프로이엔, 『음모론』, 신영경 옮김, 돌베어나무, 2020.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 지성사, 2014.

### 3. 기타자료

-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bstruth>  
<달리(SBS 교양 공식채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sbs\\_dali](https://www.youtube.com/@sbs_dali)  
김선형, <이수정 “개구리 소년 범행 도구 ‘버니어 캘리퍼스’ 설득력 있다”>, 『연합뉴스』, 2022.6.8.17:00.  
김소정, <“개구리소년 흥기는…” 새 주장에, 이수정, “상당한 설득력” 말한 이유>, 『조선일보』, 2022.6.8.08:01.  
김현덕, <이수정 “개구리소년 흥기 새 주장, 합리적 추론…일리 있다”>, 『한경닷컴』, 2022.6.8.13:33.

- 두가은, <‘개구리소년 범인-흥기’ 새 주장에…이수정 “상당히 설득력 있다”>, 『동아일보』, 2022.6.8.11:08.
- 박수선, <‘당신이 혹하는 사이’·‘모여라 덩동댕’ 등 6편 이달의 PD상 수상>, 『PD저널』, 2021.03.19.
- 소봄이, <이수정 “개구리소년 흥기 새 주장, 좀 감동”…이춘재까지 거론한 이유>, 『news1』, 2022.06.08.10:22.
- 윤주영, <‘개구리소년’ 범행 추측 글에…이수정 “상당히 설득력 있어”>, 『한국일보』, 2022.06.08.16:00.
- 이미화, <이수정 “개구리소년 버니어캘리퍼스 살해 가설 설득력 있어”…재수사 필요성 언급>, 『여성조선』, 2022.06.08.11:49.
- 이정수, <‘개구리소년, 버니어캘리퍼스에 살해? 이수정 “설득력 있어… 재수사 필요”>, 『서울신문』, 2022.06.08.10:01.
- 임미소, <‘개구리소년 타살 흥기는 버니어 캘리퍼스’ 새 주장에 이수정 “설득력 있다. 감동 받았다”>, 『세계일보』, 2022.06.08.15:27.
- 하수영, <‘개구리소년 흥기 알고 있다’ 주장에… 이수정 “설득력 있다”>, 『중앙일보』, 2022.06.08.11:48.
- 황예림, <이수정 “개구리소년 사건 새 주장 설득력 있어”…화제의 글 다시 보니>, 『머니투데이』, 2022.6.8.10:00.

## Abstract

The Inside and Outside of Conspiracy Theories,  
Storytelling of Long-term Unsolved Cases  
- Focusing on SBS's "While You Are Tempted"

Kim, Sue-Ahn(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d on the storytelling of criminal events attempted through infotainment programs that combines investigation programs and entertainment programs in legacy media, and tried to examine its journalistic value and limitations.

The main targets of analysis are two episodes of SBS's "While You Are Tempted," which narrowed the theme of the story to 'conspiracy theory' and put it at the forefront, dealing with the 'Frog Boy' ca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pisodes in the way they relate long-term unsolved cases and conspiracy theories was also linked to changes in the method and intention of using 'conspiracy theory' as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previous episode that dealt with the Frog Boy case, it tracked the path of conspiracy theories surrounding long-term unsolved cases and explored political, legal, and financial interests related to the formation and dissemination of conspiracy theorie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episode focused on scientifically verifying several hypotheses that infer the culprit and the tools of the crime, and submitting another hypothesis that is most likely but not certain. In the episode, the precision of scientific verification methods that followed from existing exploration and reporting programs was emphasized and displayed excessively, and as a result, the conclusions drawn compete with the conspiracy theories that were intended to be verified. This difference was caused by the adjustment of conspiracy theory to the subject material of reasoning like a ghost story or mystery, unlike the previous planning intention to take issue with

conspiracy theory as the theme of the program.

The original sense of purpose of “While You Are Tempted” that states the conspiracy theory itself as a problematic can be read as a clear political decision in that it presupposes public opinion that opposes the conspiracy theory.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reproduction of such public opinion is a symbolic capital that supports the authority of legacy media. The authority was also the basis for legacy media to diagnose that various conspiracy theories were threatening public safety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crisis, and to present reasonable criteria for judgement. The program’s sense of purpose and use of conspiracy theories, which changed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the reorganization, showed the self-reflection to maintain the authority of legacy media and the ambivalence that it was easily reversed.

**(Keywords: Conspiracy theory, Crime, Storytelling, Infotainment, Unsolved Case, Frog Boy Case, While You Are Tempted)**

■ 논문투고일 2023년 1월 6일

■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27일

■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6일